

노벨리스, 울산 알루미늄 리사이클 센터 가동...연간 42만톤 탄소배출 감축 기대

- 6천5백만 달러 투자, 저탄소 알루미늄 제품 연간 10만톤 생산
- 연간 나무 약 1,900만 그루가 흡수한 탄소량 저감 효과
- “캔, 자동차, 산업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생 알루미늄 원료 사용 확대...순환경제 전환 가속화”

2025년 4월 15일 - 지속가능한 알루미늄 솔루션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알루미늄 압연 및 재활용 기업 노벨리스가 ‘울산 알루미늄 리사이클 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벨리스가 고베제강과의 합작법인인 ‘울산알루미늄’에 6천5백만 달러를 투자해 건립한 울산 알루미늄 리사이클 센터는 연간 10만톤의 저탄소 알루미늄 시트 잉곳을 생산할 수 있다.

경북 영주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알루미늄 음료캔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노벨리스는 울산 알루미늄 리사이클 센터 준공으로 국내에서 연간 약 47만톤의 알루미늄 재활용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노벨리스가 전액 출자한 울산 알루미늄 리사이클 센터는 캔, 자동차, 산업재 등 다양한 유형의 알루미늄 스크랩을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노벨리스의 알루미늄 재활용 역량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노벨리스는 울산 알루미늄 리사이클 센터를 통해 연간 42만톤 규모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나무 한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을 22kg^[1]으로 보았을 때 약 1,900만 그루가 흡수하는 양에 해당한다.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 광석에서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보다 재활용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을 각각 95% 줄일 수 있고, 품질 저하 없이 무한 반복해 재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순환 자원이다.

사친 사푸테 노벨리스 아시아 사장은 “울산 알루미늄 리사이클 센터는 음료 포장재, 자동차, 고품질 스페셜티 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늘어나는 고객들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알루미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노벨리스는 재생 알루미늄 원료 사용을 더욱 확대해 노벨리스와 고객, 그리고 알루미늄 산업 전반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 미국 농무부 산림청 (Forest Servi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 따르면 성숙한 나무 한 그루는 연간 48파운드(약 21.8kg) 이상의 이산화탄소(CO₂)를 흡수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노벨리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제품 평균 재생원료 함량 75% ▲압연 알루미늄 제품 1톤 당 이산화탄소(환산량) 3톤 미만 배출 ▲선제적 투자를 통한 순환경제 선도라는 3가지 목표 달성을 골자로 하는 ‘노벨리스 3x30’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

노벨리스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함께 만든다는 기업 목적을 표방합니다. 노벨리스는 혁신적인 알루미늄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세계 최대 알루미늄 재활용 기업입니다. 또 저탄소, 지속 가능한 알루미늄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서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 지역에서 항공우주, 자동차, 음료 캔, 스페셜티 제품 산업의 고객 및 공급업체들과 협력해 완전한 순환경제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 회계연도에 노벨리스는 약 162억 달러의 순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노벨리스는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 아디트야 비를라 그룹(Aditya Birla Group)의 알루미늄, 구리, 금속 부문 주력 기업인 힌달코 인더스트리즈(Hindalco Industries Limited)의 자회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noveli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